

디스코비행접시등 70여件 發明

學生 發明家를 養成하는 教師 發明家



朴 文 甲

<釜山 巨星中 教師>

자라나는 學生들에게 發明思想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이 自身の 使命이라는 發明家 教師가 있다.

釜山 巨星中學校 朴文甲教師(39)는 學校에 特別活動으로 發明班을 組織하여 수십명의 學生發明家를 養成했다.

또 自身도 國內外에 73件的 工業所有權을 出願하여 37件을 登錄하는 등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한 功으로 지난 5月 19日 第19回 發明의 날에 國務總理表彰을 받기도 했다.

— 編輯者 註 —

趣味로 시작한 發明

새로운 것을 보면 그 原理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일을 始作하면 끝을 보아야 하는 性格 탓인지 恒常 바뀐 사람으로 烙印이 찍혀 있다.

1970年 當時만 해도 우리 社會에서는 企業主나 一般人들 사이에 工業所有權에 對한 關心이 별로 없었던 時代였고 마치 美國의 開拓時代에 金鑛을 찾는 西部人들 처럼 一部 個人發明家들은 工業所有權으로 인한 일확천금을 꿈꾸던 時期이었기도 하였다.

當時 내班 學生중에 生活이 어려워 授業料를 못낸 女學生이 있었다.

여러달치 授業料가 밀려 結局 除籍이 될 딱한 處地가 되어 家庭訪問을 하게 되었는데 生活이 말이 아니었다.

學生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職業을 물었더니 事業家라는 것이고 어떤 事業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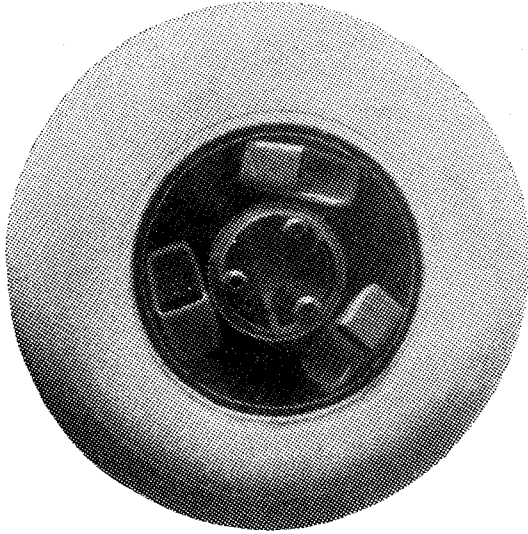
마침 한잔 얼큰하게 되어 귀가하는 아버지를 만나 인근 대포집에서 주머니 받거니 하다 自然히 職業 이야기로 話題가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父母의 遺産으로 家內工業을 하면서 잠 잘한 재미를 보았고, 製品生産中 한 idea를 얻어 이의 技術開發에 많은 財産을 消耗하고 나머지는 國內 및 國외의 特許出願費用으로 모두 날렸지만 特許權이 팔리기만 하면 곧 巨富가 된다는 幻想속에 살고 있었고, 工業分野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 인텔리였다.

그날 以後 나 또한 여기에 魅了되어 趣味로 始作한 것이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 등 73件이 出願되었고, 其中 登錄된 것이 37件에 이르게 되었으니 엄청난 費用을 날린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後悔는 하지 않는다.

골프나, 낚시 등의 趣味를 가졌드라면 그 이상의 돈이 消費되었을 것이라고 自慰하니까?

遇然한 만남

在日 僑胞가 經營하는 東和通商株式會社에서 美國 WHAM-O社의 特許品인 FRISBEE®圓盤에 對한 商標權을 引受하여 그 製品을 美國의 ROSE BOWL大會에서와 같이 스포츠用品으로 우리나라에 普及하기 爲해 釜山市內의 몇개 學



〈디스코 비행접시〉

校에 見本을 보낸 일이 있었다.

圓盤의 使用法을 學生들에게 指導하여 보니 그 反應이 매우 좋았다.

몇 個月이 지나자 商標를 盜用한 低質品이 纒 값에 쏟아져 나오기 始作하고 軟質의 規格製品이 硬質의 低質品으로 둔갑했으니 學校의 유리 窓이 깨어지기 始作하였다.

그러니 校內에서 圓盤 놀이를 엄금하게 되었고, 스포츠 用品으로서의 普及이 不可하게 되어 이를 東和通商에 助言하였더니 同社 社長이 日本 FRISBEE DISC 協會 Director인 小林信也와 함께 1981年 2月 23日 釜山에 와서 세계 學校에 ROSE BOWL大會의 光景과 競技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紹介한 셈이다.

그러나 이미 2月 22日에 코모도 호텔에서 내 意見은 現在까지의 調查結果玩具로의 普及은 可能하나 스포츠用品으로는 不可하다는 것이고 東和通商에서는 絶對적으로 可能하다는 意見對立으로 結局 同社에서는 우리나라에 FRISBEE의 商標出願을 하게 되고, 나는 이 圓盤을 玩具를 겸한 스포츠用品으로 開發할 決心을 굳힌 契機가 되었다.

미련한 옹고집

어디 보자 누가 옳았는지 그리고 누가 成功하는지? 이때부터 大衆에게 어필(appeal)될 수

있는 玩具의 要件을 調查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 玩具의 流通構造는 역시 큰 市場의 都賣商에 依해 左右되며 그들의 判斷이 事業의 成敗與否를 거의 決定하고 있어 이들이 大衆의 消費性向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助言은 한결 같이 現在까지 무난히 販賣된 玩具의 特徵은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다.

나는 圓盤에 소리器具를 設置할 계획을 세우고 호루루기나 소리나는 팽이의 原理를 適用하기로 決定을 하였다.

낮에는 勤務를 해야하고 不得已 밤에 實驗을 防音施設이 全無한 倉庫속에서 하자니 피리소리 호각소리, 팽이소리 등이 이웃에 흘러 나갔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처음 몇 週日 동안은 學校 先生任이라는 體面을 보아 참아왔는데 이게 달을 넘기자 참다못한 이웃사람들이 派出所에 告發을 하게되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열심히 호각소리를 調節하고 있는데 失禮한다는 노크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누굴까하고 문을 열었더니 순경이 들어와서는 無條件 物件을 全部가지고 派出所로 가자는 것이다. 별수 없이 너절한 잡동사니를 들고 派出所에 가니 대뜸 職業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教師이며 發明에 손을 좀 대고 있다니까 이웃사람 잘못하게 하는 發明을 하느냐며 호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特히 이웃에 模範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런짓을 한 것은 故意性이 多分하니 即決에 넘기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가지 일에 熱中한 나머지 큰 罪를 지은것 같아 百拜謝罪하여 始末書만 써주고 나오게 되었다.

그때의 心情이야 당장 집어 치울 생각밖에 없었으나 여태까지의 勞力이 아까워 倉庫의 틈새를 全部密閉시키고 다시 일을 계속하는데 三伏 더위라 그속에서 作業을 하자니 마치 사우나湯속에서 일하는 것같은 苦役이었다.

한 송이 국화는 피었고

드디어 苦役의 보람이 結實을 맺게 되었다. 圓盤의 中心部에 세계의 體積이 密閉된 空間을 隔設하여 그 上部에 구멍을 뚫으면 구멍은 같고

體積이 서로 다른 병을 입으로 불면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간단한 原理로 體積이 가장 큰 第1空間은 低速에서 低音이 第2空間은 中速에서 소리가나고, 또 第3空間은 가장작은 體積으로 高速에서 高音을 낼 수 있게되어 처음 圓盤을 回轉되게 할것 던지면 圓盤의 궤도는 拋物線을 그리면서 高速, 中速, 低速으로 떨어지므로 圓盤이 出發에서 떨어질때까지 계속하여 소리를 낼 수 있게 考案된 것으로 이 구멍과 體積의 콤비네이션이 이 玩具의 生命이었다.

공고집이 結局 意匠登錄 第34730號, 第39734號, 實用新案登錄 第23391號 및 商標登錄 第86416號를 얻었고, '82년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의 出品이 契機가 되어 某玩具會社에 相當한 代價로 讓渡하게 된 것이다.

씨앗을 뿌리자!

本業이 教師이니 자라나는 學生들에게 發明思想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이 내 使命이라 생각한다.

1980年 이 學校에 赴任하고부터 發明班을 組織하였다. 아마 特別活動으로 發明班이 있는 일은 우리나라 教育界에 처음있는 일이고 本校 하나 뿐인 것으로 안다.

各 學年에서 適性, 興味檢査, I.Q 및 學業成就度等に 合格한 10~15名으로 構成되어 工業所有權에 對한 理解와 發明事例의 耽讀으로 出發해서

- 各種 物品에 對한 缺點의 發見
- 두 物品의 結合에 依한 創作
- 한 物品의 特徵을 다른 物品에의 適用에 對한 學習을 시켜 여기에서 얻어진 idea로 各種大會에 出品하여

1981. 9. 30. 제3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 1, 우량상 1, 장려상 1개와 중등부 단체 우수상(교육감상)

1981. 12. 2. 제7회 발명사상양양 전국학생작품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경제기획원장관상)

1981. 12. 4. 국립과학관주관 제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동상 1, 입선상 1 (공업진흥청장상) 개를 수상하고, 학교단체상(문교부장관상) 및 과학기술처장관 우승기수상.

1982. 4. 27. 부산직할시 주최 '82 생활의 지혜 우수사례 발표회 장려상 수상(부산직할시장상)

1982. 8. 7. 제19회 과학전시회 특선상 1, 입선상 1개와 학교단체 입선상 수상(부산직할시교육감상)

1982. 8. 26. 제4회 학생과학 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1, 우량상 3개와 중등부 단체 우수상 수상(부산직할시교육감상)

1982. 9. 6. '82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동상 1, 장려상 3개 수상(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발명특허협회장상)

1982. 10. 14. 과학기술처주최 제28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 수상(상공부장관상)

1982. 12. 3. 국립과학관주관 제4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은상 1, 장려상 1개 수상 과학기술처장관상) 및 학교단체상(문교부장관상) 과학기술처장관 우승기 수상

1983. 5. 19. 제8회 발명사상 양양 전국학생공모전에서 우수상 1, 장려상 1개 수상

1983. 6. 7. 동국대학교 주최 제11회 전국학생과학 idea작품 전시회 최우수상 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

1983. 7. 25. 제5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1, 은상 1개와 단체 우량상 수상(부산직할시교육감상)

1983. 6. 21. 제5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계획서심사위원(부산 어린이회관장 위촉)

1983. 8. 25. 부산시 교육위원회 주최 제5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학생작품을 제작지도하여 금상 1개, 은상 1개의 수상과 부산시 중등부 단체 우량상 수상(부산시 교육감상)

1983. 9. 7. '83 전국 우수 발명품전시회에서 장려상 2개, 창안상 1개(한국발명특허협회장상)수상

1983. 11. 7. 과학기술처 주최 제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입선상 수상(동아일보사장상)

이같은 所期의 成果를 보았으니 이나라 장래를 짊어질 학생 發明家들의 養成이야 말로 값진 寶物을 얻는 것이라 生覺하며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한알의 밀이 섞여 열매가 익을 때까지 이들의 뒷바라지에 내 情熱을 쏟고져 한다. ☺